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간

스페이스 미조

박석희

(주)네츄럴시퀀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선희

(주)네츄럴시퀀스건축사사무소 CDO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54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복합문화공간)
대지면적	1,572.90m ²
건축면적	925.18m ²
연면적	1,785.38m ²
규모	지상 4층
높이	17.8m
건폐율	18.82%
용적률	32.30%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바로구조
설계	박석희, 이선희
설계담당	안요섭, 배승현, 유지원, 임나영, 김여영, 김민정, 배혜민
시공	리호건설
기계·전기설계	(주)하늘천
설계기간	2019. 4.~2020. 3.
시공기간	2020. 3.~2021. 11.
공사비	약 23억 5,000만 원
건축주	남해군



방문자는 남해의 자연경관과 예술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커뮤니티와 만나게 된다.
이 공간은 자연 속에서 사람과 건축과 예술 사이의
복합적인 상승관계를 만들어 낸다.

공간의 시퀀스에 따라 과거와 현재, 남해 바다와 상록수림,
예술과 인간의 역동적인 어업 활동이 서로 긴장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공간 스케일의 변화 속에서 복합적인 시너지를 일으킨다.



스페이스 미조에서 바라본 남해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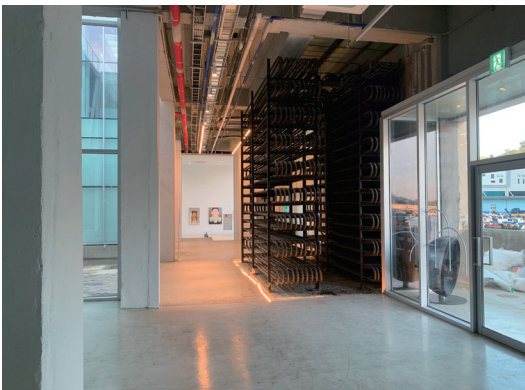
©(주)네추럴시퀀스건축사사무소



©(주)네추럴시퀀스건축사사무소



©(주)네추럴시퀀스건축사사무소



상 주 출입구
하·좌 빙각수 파이프 구조를 남겨 놓은 로비
하·우 미조홀과 남해 바다



1층 미조홀



© HJG



© (주)네추럴시퀀스건축사무소

상 중장기든과 상록수림
하 그대로 활용한 얼음창고 병동실의 마감



상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공연장
 하·좌 기존 건축의 소재와 새로운 재료의 만남
 하·우 기획전시실

인간의 사유를 가능케 하는 여유 공간 개념은
결국 자연 공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며,
스페이스 미조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이 이러한 개념을 따르고 있다.



© F&F
2017

특별한, 동시에 일상적인

남해 미조항 냉동창고를 재생하는 이 프로젝트가 기존의 재생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를 바랐다. 과거에 냉동창고로 쓰이다가 당시 유희시설로 남아 있던 이곳에 빛을 조각하고, 비와 바람을 가져왔다. 꽃과 나무를 심었고, 다시 남해의 섬과 바다를 펼쳐 놓았다. 밤이 되면 이곳은 별과 달이 가득한 곳이 되고, 새벽이 되면 안개가 잔뜩 낀 미조항을 위한 등대가 되기도 한다. 이곳으로 초대된 방문자는 남해의 자연경관과 예술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커뮤니티와 만나게 된다.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크듯이, 이 공간은 자연 속에서 사람과 건축과 예술 사이의 복합적인 상승관계를 만들어 낸다. 이 공간이 방문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으로 기억되고, 커뮤니티에게는 일상의 순간을 즐기는 장소가 되기를, 그리고 이 공간의 모든 기능보다도 공공의 모범적인 장소로서 서로에게 시민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촉진제로서 작동되기를 열망하였다.

비워낸 건축, 더해진 생명력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은 한국의 공간에 대해 “산야가 매우 작은 스케일로 부드럽고 또 중첩되어 있고 이 중첩된 곳을 통과해 끝이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중첩되고, 계곡이 다시 등장하는 반복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남해를 보면 우리의 산야뿐만 아니라 바다와 섬도 그러한 듯하다. 스페이스 미조를 설계할 때도 이를 남해의 전반적인 콘텍스트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스케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남해의 일상이고 이곳 사람들은 이러한 공간의 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미조마을을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 미조마을의 자랑스러운 공간, 모두의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이곳 사람들에게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미조마을 전체의 뒷마루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계를 통해 미조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의 선을 복돋우고, 사람들이 이곳을 사용하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가장 큰 설계요소로 공간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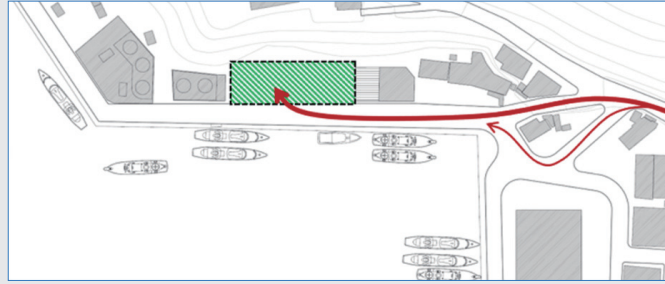
©(주)비움랩스튜디오



상 개방성을 더하는 유리 파사드
하 철거 중 트러스 위치에서 바라본 원시림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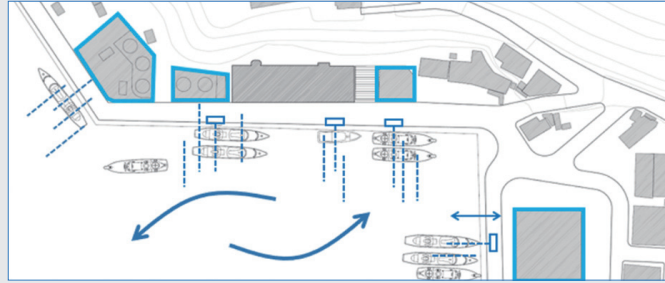
설계의도

Urban Context
방문자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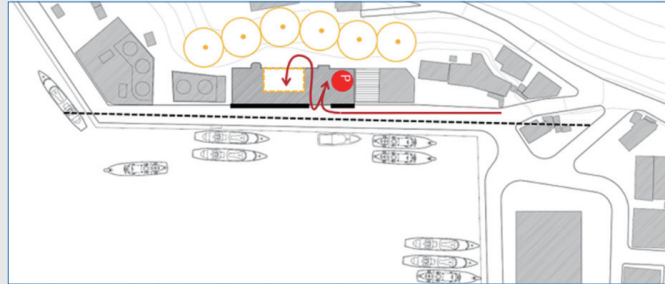


©(주)내추럴스페이스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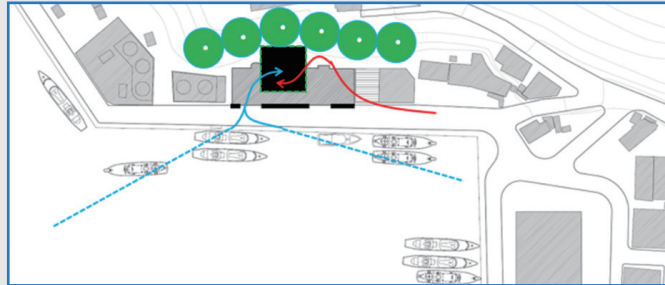
Port Activity
항구 주변 현지 활동



Backyard
후원으로 방문자 동선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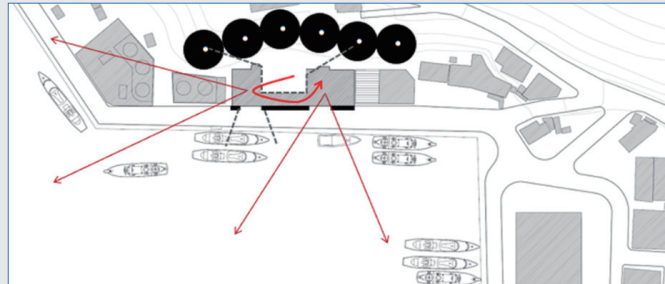


Court Garden
중정가든



미조마을의
빛마루

Openess
열림을 통한 공간의 확장



휴먼 스케일의 남해 일상을 거닐던 사람들에게 후정의 원시자연을 거대하고 장엄하게 맞닥뜨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조금 더 극적으로 공간의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 방문자는 출입 시 새어나오는 빛을 어렵잡아 어두운 길목을 통과하도록 하였고, 어느 정도 정돈된 마음에서 원초적인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정은 그 거대한 스케일로 하여금 스페이스 미조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크게 비워냄을 통해 창의적이고 엄숙하며 정돈된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감공사와 운영으로 '따뜻함' 또한 담아낼 필요가 있었다. 크게 비워냈으니,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하였다. 건축적으로 크게 비워냈지만 배경으로만 남아 황량해진 공간을 많이 보았다. 인간과 식재는 물론 동물까지 이 거대한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하고도 풍성한 생명력의 요소를 더하고자 하였다. 중정에 거위를 키우는 것이 이러한 아이디어의 일부였다.

김수근 선생님이 '궁극 공간(Ultimate Space)'이라 표현하였던 인간의 사유를 가능케 하는 여유 공간 개념은 결국 자연 공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며, 스페이스 미조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이 이러한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곳에서 문화와 콘텐츠, 인간의 창의성이 꾸준히 발현되어 미조마을과 남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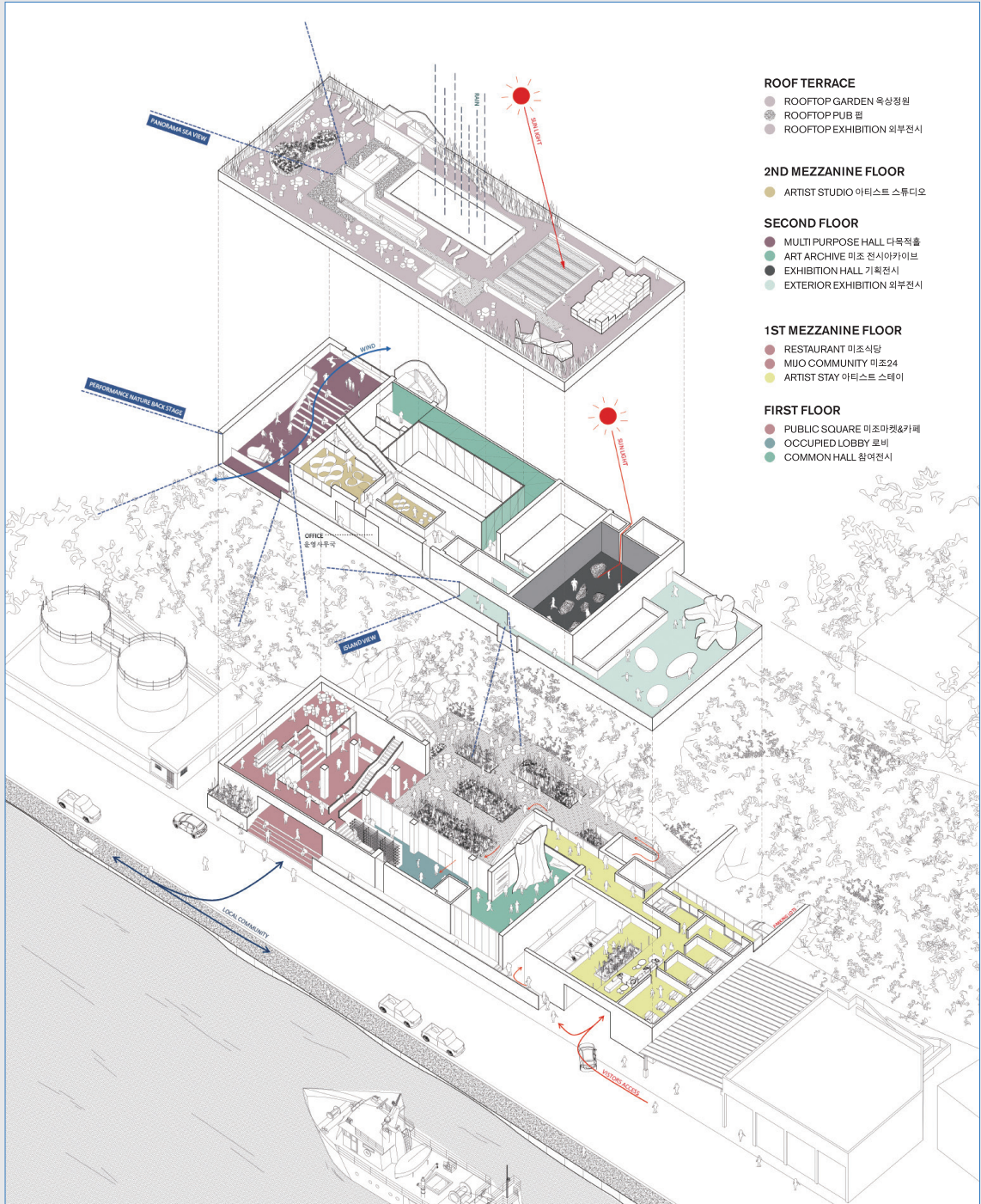
시공간의 연속과 교차가 만들어 내는 경험

오래된 것과 새로운 재료가 조화를 이루고, 순간순간의 자연이 공간 내부로 깊숙이 전달되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내외부의 모든 것을 시시각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항구의 역동성으로 읽히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생명력이 내부의 정적인 공간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와 같이 스페이스 미조의 모든 공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방문객에게 복합적인 경험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간의 시퀀스에 따라 과거와 현재, 남해 바다와 상록수림, 예술과 인간의 역동적인 어업 활동이 서로 긴장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공간 스케일의 변화 속에서 복합적인 시너지를 일으킨다.

©(주)네추럴스페이스건축사무소



상 어부의 식탁
하 냉동창고 아카이브



생활 프로그램

건축 전면에 3m 높이의 브리지를 설치하고 그 뒤로 연못과 2m 벽체를 중첩해 두었다. 벽체 뒤로는 원시림이 둘러싸고 있다. 빛은 이 울창한 원시림을 비추며 내부로 들어오고, 12m 높이에 설치된 채광창을 통해 산란된 빛이 두 번째로 내부를 밝힌다. 건축 뒤편으로는 당연히 미조항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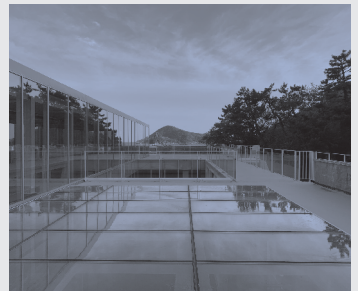
기존 건축에 남아 있던 냉각수 파이프는 이곳의 장소성을 보존하기 위해 복원되어 활용되었고, 얼음창고 냉동실의 마감도 어느 정도 남겨두고 기능에 따라 새로운 재료를 덧붙여 썼다.

자연과 사람, 예술과 건축의 복합적 상승관계

스페이스 미조는 이제 막 준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필자는 항구 반대편에서 완성된 스페이스 미조를 바라보며 과거 뉴욕현대미술관의 전시 ‘건축가 없는 건축’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한국 공간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스페이스 미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자연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역동성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이곳에 예술이 더해지며 미조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먼 남쪽의 작은 항구를 즐기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주민설명회 때 미조마을 주민들에게 장담하였던, 마을 아이들이 스스로 여는 작은 음악회가 현실화되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예술과 인간이 하나되는 특별한 장소가 생겨 기쁘다.

© HFF
한빛



상 스페이스 미조 외관
중 중정가튼과 상록수림
하 옥상정원